

다양한 장르와 소통하는 맑고 청아한 목소리

현경채 | 음악평론가



우리의 전통성악인 여창가곡 전수자(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정마리는 국악뿐만 아니라 연극, 영화, 무용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장르와 꾸준히 소통해 온 젊은 여성 가객이다. 2005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신진예술가지원'에 선정되었으며, 지원받은 기금으로 가객 정마리의 첫 독창회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가 2005년 11월 18일과 19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있었다. 정마리는 이 음악회로 국악계와 연극계는 물론 언론의 특별한 주목을 받았다.

정마리가 대학에서 전공한 '가곡'은 시조시에 가락을 붙여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전통 성악곡으로, 부르는 방법에 따라 여창, 남창, 남녀병창 등으로 나뉜다. 주로 사대부와 선비 등의 계층에서 풍류와 인격 수양을 위해 불렀던 노래로 느린 가락에, 고고하면서도 영롱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한 정마리는 연극 <눈먼 아비에 게 길을 묻다>에서 선향 역을 맡기도 했으며, <복수는 나의 것> <해안선> <YMCA 야구단> <바람난 가족> <친절한 금자씨> <4인용식탁> 등 여러 영화의 영화음악에서 다양한 창법의 노래로 참여했다.

지리산 소녀, 국악인 되다

동양적인 외모, 입고 다니는 옷, 말을 하면서 짓는 표정 등 모두가 독특한 정마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녀가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를 갖고 있다는 강한 인상을 갖게 한다. 그것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지리산의 환경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작은 목소리로 느리고 청아한 창법으로 노래하는 정마리는 1975년 지리산 자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Marie's Merryland는 그녀가 나고 자란 지리산의 농장의 이름이다. 서울대학교와 동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미국유학을 계획하던 정마리의 아버지는 두 살 위인 언니가 백일 무렵일 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다.

정마리는 잊혀져가는 소리를 세상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가곡이란 소규모 실내악 반주에 시조시를 노래하는 성악곡으로 사대부와 선비계층에서 풍류와 인격수양을 위해 불려졌던 노래이다. 가곡은 음높이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는 발성법이 일품으로 그것이 관현악기의 소리와 어우러져 가곡만이 갖는 독특한 소리의 세계를 창출한다. 특히 정마리의 맑고 영롱한 목소리는 가곡을 부르기에 적합한 음색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곡이란 소규모 실내악 반주에 시조시를 노래하는 성악곡으로 정마리는 가곡을 부르기에 적합한 음색으로 평가받고 있다.

왼쪽 페이지 동양적인 외모와 독특한 분위기의 정마리는 맑고 영롱한 목소리로 가곡을 노래하는 국악인이다.

그녀가 태어나자 그녀의 아버지는 농장의 이름을 Marie's Merryland 라고 붙였다. 항상 조용히 책과 가까이 사는 언니와 달리, 동생 마리는 봄에는 진달래꽃, 짙레순을 꺾으러 다니고, 여름에는 물놀이에 새가 망게 그을리고, 가을에는 단풍을 보며 조금 차분해지기도 하고, 겨울에는 쫑쫑 얼어버린 개울에서 입술이 새파래지도록 얼음을 지치며 살았다.

어린 시절 정마리에게는 지리산의 자연 환경 외에는 사실 별다른 친구도 장난감도 없었다. 나무에게 이름을 붙이고, 돌맹이와 대화를 하고, 시슴을 돌보며 살았다. 강아지, 나무, 풀, 돌 등 특이하고 잘생긴 것들에 이름을 붙여놓고 혼자놀이에 열중하며 지냈다. 집안을 통과하는 시냇물이 있었으며, 시냇물 속에는 이름을 붙여놓은 크고 작은 돌들이 매일 매일 어린 마리의 소중한 대화 상대였다.

한차례 비가 내린 후에는 새로운 돌들이 찾아오고, 한참을 떠내려가 다른 장소에서 발견되는 그녀의 불쌍한 돌을 찾아내야 하고 새 친구에게 이름도 붙여야 하

기 때문에 소녀의 지리산 생활은 한가할 틈이 없었다. 그리고 어린 정마리는 그곳에서 그렇게 자연의 친구들과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기로 맘을 먹었다. 행복한 것이 중요하고 앞으로 농장에서 평생을 살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 공부는 중학교까지로 충분하고, 그 후에는 농장에 남아야 한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농장 일을 배우는 것이 시급했다. 중학교 3학년 봄 시즌에는 아버지의 허락으로 1개월간 장기 결석계를 내고 본격적으로 농장 일을 돕기도 했다. 농장에서 봄은 가장 바쁜 시기이다.

그런데 참 우연히 국악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Marie's Merryland를 떠나게 되었다. 중학교 여름 방학 생활 책에 소개된 특수국악고등학교를 보고, 바로 진학을 결심하게 되었고, 음악학교에 대한 환상으로 진로를 180도 바꾼 셈이다. 중학교 음악선생님께 시창 청음을 배우고, 2개월간 벼락치기로 중학교 3년 과정을 공부하여 학교에 합격하는 데에는 성공을 했지만, 국악고등학교의 수업을 따라갈 수 없어서, 1년을 휴학하고, 음악공부를 보충하기도 했다.

그렇게 힘겨운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고, 그 후 서울 대학교와 대학원을 거쳐 지금까지 15년 동안 노래를 했다. 정마리는 손끝과 발끝에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들, 단단해지는 아랫배의 든든함, 나즈막히 속삭일 때 들리는 숨소리에 행복해 하며 노래한다. 그래서인지 정마리의 노래는 표현력 면에서 상당히 다양하고 섬세하다.

국악고등학교에 진화를 걸어 어떤 사람이 정가전공을 할 수 있는지 물어 보았고 “목소리가 맑고 고운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노래 인생을 시작한 정마리의 목소리는 이제 국악계와 영화음악계 등 다양한 장소에서 들을 수 있다. 참으로 신비한 목소리의 주인공 정마리가 노래하는 스펙트럼의 폭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넓다.

느리고 아름다운 노래, 정마리의 여창가곡

중요무형문화재 제30호 가곡의 전수자인 정마리는 잊혀져가는 소리를 세상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가곡이란 소규모 실내악 반주에 시조시를 노래하는 성악곡으로 사대부와 선비계층에서 풍류와 인격수양을 위해 불려졌던 노래이다. 가곡은 음높이에 따라 미묘하게 변화하는 발성법이 일품으로 그것이 관현악기의 소리와 어우러져 가곡만이 갖는 독특한 소리의 세계를 창출한다. 특히 정마리의 맑고 영롱한 목소리는 가곡을 부르기에 적합한 음색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마리는 여창으로 전하는 15곡의 가곡 중에서 특히 느린 템포의 노래를 장기로 한다. 이삭대엽, 중거, 평거, 두거 등의 긴 노래를 부를 때 끊어질듯 이어지는 선율 속의 노랫말에 따른 섬세한 표현력이 절묘하다. 이십대의 음색이 다르고, 삼십대의 노래 소리가 다를 것이고, 마흔 즈음에는 삼십대의 노래와 다른 모습이 발견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마리는 이미 40대 이후 본인이 무대에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에 대한 치밀한 계획이 있다. 무대에서 선보이는 노래는 언제나 공부하는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긴 노래와 긴 호흡에 상당한 자신감과 공력을 보유하고 있다.

가곡은 느린 노래로 호흡과 관련되어 가객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일정하게 숨 쉬는 자리가 있다. 긴장을 하면 아무래도 숨이 짧아지기 때문에 긴장을 넘어서 긴 호흡으로 노래해야 하는 음악이다. 때문에 가객들은 평상시 꾸준한 운동을 통해 호흡을 늘이거나 길게 부르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다. 도둑 숨을 쉬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도둑 숨을 쉬지 않고 쉬는 듯 살짝만 걸쳐서 지나가야 가곡의 매력 잘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실제로는 안 끊어지지 긴장감을 이어갈 수 있으며, 멋스러운 가곡으로 완성될 수 있다. 정마리가 부르는 가곡이 그렇다. 가곡의 조(調)에는

그녀는 충분히 고민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고 섬세하게 표현을 한다. 노랫말이 갖고 있는 미적 감각을 청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감상하고 교감하는 무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표현하는 가객이 바로 정마리이다.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열린 첫 독창회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의 공연 중 피아노와 켈릭하프 반주에 맞추어 노래하는 주인공

우조(羽調)와 계면조(界面調)의 두 가지가 있다. 정마리가 노래하는 우조는 팽팽한 긴장감이 매력적이고, 계면조는 풀어내는 느낌으로 해석된다. ‘벼들은 실이 피고 피꼬리는 북이되어……’의 시조시를 노랫말로 불러는 여창가곡 우조 이삭대엮은 1분에 20박의 느린 템포로 대략 11분 가량 노래되는 긴 음악이다. 장시간동안 집중을 하며 감상하는 것보다는 음화적인 부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음악에 젖어 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꼬리는’ 부분은 푸드득 날아가는 피꼬리의 모습처럼 악센트를 주어서 과장되게 노래해야 하며, 이 부분과 같은 선율 진행의 ‘짜내느니’ 부분은 안으로 넣어서 부르며, 마음으로 짜내는 듯한 마음이 짐으로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정마리는 설명한다. 이처럼 그녀는 충분히 고민하고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하고 섬세하게 표현을 한다. 노랫말이 갖고 있는 미적 감각을 청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감상하고 공감하는 무대로 만들어야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비로소 무대에서 표현하는 가객이 바로 정마리이다.

새로운 가곡을 기대하는 실험적인 작업

여창가곡은 국내에 전공자도 매우 적고 널리 알려진 음악도 아니다. 하지만 정마리는 크고 작은 공연을 통해 어찌던 잊혀진 노래가 되어버린 전통가곡에 현대적인 존재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윤이상의 <가곡(Gagok)>을 새롭게 해석한 <가야금과 목소리를 위한 가곡>을 부르기도 했으며, 국악방송 창작음악회에서 초연되어 호평 받은 바 있는 스페인노래 ‘L’ Amor’와 여창가곡 <평릉>을 재해석한 <저녁, 사랑을 보다>를 아름다운 선율의 켈터하프와 함께 노래하여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곡은 2004 국악축전과 정마리의 독창회에서 연주되기도 했다. 2005년 11월 예술의전당에서는 <우리가 만난 적이 있던가요?>의 독창회로 잊혀진 노래를 잊혀진 악기들과 함께 세상으로 끌어내고자 하였다. 공후 반주로 부르는 여창가곡 우조 두거 <공후인>.

새로운 노래 음악 작업은 전통가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형식미를 해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과 21세기의 새로운 가곡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피아노의 전신 하프시코드와 함께하는 13세기 프랑스 민요 <Onques n’amai tant que jou fui amee>, 피아노의 전신 하프시코드와 함께 로이에의 론도에 여창선율을 입힌 <L’ Aimable>, 카치니의 <Amarilli mia bella>, 가야금으로만 노래하는 여창가곡 계면조 중거 <빈 산에 잠든 달> 등 동서양의 옛악기와 정마리의 목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독특한 음악회로 구성되었다.

최근에는 작곡가 윤혜진과의 노래 작업이 활발하다. 여러 악기의 인상을 목소리로 표현한 무반주 노래곡 <Have ever seen me before?>와 공후와 노래를 위한 <나뭇춤 2> <물속의 물고기> 등 의 윤혜진 작곡의 작품을 정마리는 푸른 새벽빛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노래하였다. 서양의 악기들이나 시대를 초월한 악기들과 함께 하는 정마리의 새로운 노래 음악 작업은 전통가곡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형식미를 해치는 한계를 가질 수 있지만 월드뮤직으로서의 가능성과 21세기의 새로운 가곡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작업으로 평가된다.

정마리는 음악가의 일은 노래를 하는 것이고, 일이 라면 고정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녀의 꿈은 2005년 <Marie’s Merryland in Banjul - 실험공간 반줄> 공연으로 구체화되었다. 1월부터 시작하여 매월 다른 내용의 음악을 준비해 작은 공간에서 열린 11번의 연주회에서 작은 목소리로 느리게 노래를 부르던 가객 정마리를 관객은 가깝게 만날 수 있었다. 기다림과 그리움, 안타까움은 자신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원적인 것으로 어떻게든 표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럴 땐 노래를 부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그것들이 숨결을 따라 몸 밖으로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담은 작은 음악회가 바로 <Marie’s Merryland in Banjul - 실험공간 반줄>이었다. 1월부터 시작된 이 음악회 중에서 6월에는 자장가로 꾸민 <자장자장> 음

악회가 있었다. 어떤 노래는 3절까지 가사가 있어서 노랫말을 외우는 것이 힘들었다고 한다. 작곡가는 왜 3절까지 가사를 적었을까? 1절은 아기 이야기이고, 2~3절은 엄마의 이야기가 남아 있었다는 것을 <반줄> 음악회를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몇 회 연주회인가 따위의 경력의 차원으로 열리는 요즘의 음악회와 달리 정마리의 <반줄> 공연은 음악가로서의 의무에 동시에 사람과의 소통이었기에 지난 1년간 꾸준히 개최되었다.

다양한 장르와의 만남을 시도하며

최근 전통가곡뿐만 아니라 현대음악, 무용, 영화, 연극 등 다양한 장르와의 적극적인 만남을 시도하며 가곡을 전공하는 가객으로서가 아니라 표정이 다양한 노래를 부르는 가수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2000년 무용가 안은미와 함께 한 <은하철도 000>에서 무대 공연을 접하고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공연에 매료되었다. 2004년에는 연극 <눈먼 아비에게 길을 묻다>에서 연극배우로 출연하여 연기와 함께 음악 감독의 역할까지 맡았던 정마리는 극중의 모든 노래를 직접 만들어 불렀다. 이 연극에서는 죽어서도 가족의 주위를 맴도는 죽은 딸 선향 역을 맡아 장면이 전환될 때마다 애잔하고 따뜻한 구음과 민요를 풀어내 감동을 전했다. 2005년 6월에는 세계적인 무용가 피나 바우쉬의 한국을 소재로 한 작품 <Rough Cut>(LG아트센터)에 정마리의 노래가 선택되어 함께 공연하기도 했다.

영화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에게 무의식 중에 한두번은 들렸을 정도로 젊은 가객 정마리는 많은 영화 음악에 참여했다. <복수는 나의 것> <해안선> <YMCA 야구단> <바람난 가족> <친절한 금자씨> <4인용식탁> 등 여러 영화의 영화 속에서 다양한 창법의 노래로 참여했다. 부드러운 기타반주에 여리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불려진 영화 <해안선> OST 중 “모래숲 속을 걷다가 조개껍질을 보았네……”라는 노랫말로 시작되는 ‘미영의 테마’는 거칠고 폭력적인 스크린과는 정반대로 부드러운 기타반주에 여리고 감성적인 목소리가 살벌한 병사간의 갈등 사이로 섬세하게 파고들어 많은 주목을 받았다.

박찬욱 감독의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통속적



정마리는 국립국악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그리고 같은 대학원 음악학과 를 졸업했다. 제12회 동아 국악콩쿠르 정기부문 일반부 금상을 수상했으며, 전통가곡연구회 회원, 월하여창가곡보존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인 창법으로 ‘따뜻한 마음’을 노래했고, <친절한 금자씨>에서는 ‘정말로 이상하다’를 능청스러운 목소리로 노래했다. <YMCA 야구단>에서는 담길을 거니는 썬에서 비교적 길게 정마리의 노래가 흐른다. 그밖에도 <주먹이 운다> <여고괴담 4> <다세포소녀> <철없는 아내와 과란만장한 남편, 그리고 태권소녀> 등 많은 영화 음악에 참여했다.

사람들은 그녀를 향해 ‘새로운 시도를 하는 국악인’이라 일컫지만, 그것은 서로 필요에 의해 만난 경험이고 작업이었으며 궁극적으로 그녀에게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가곡에 깊이를 담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다. 매 작업마다 최선을 다해 진실함을 전하고 싶어서 그녀는 2006년에도 더욱 다양한 공연에 참여할 예정이다. 🌈